

## “교육, 희망의 날개를 펴자” 참교육학부모회 돕기 후원주점 성황리에 마쳐

우리는 지난 6월 19일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서울 중구 다동에 있는 ‘왈츠호프’에서 ‘교육, 희망의 날개를 펴자’는 깃발을 펼치고 행사를 벌였습니다.

끝이 가물거리는 350여 좌석의 넓은 홀을 오랜 선거 운동과 뒷정리 그리고 새로운 꿈을 실현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에 모두가 바쁜 시간이었지만,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당선자를 비롯한 최보선 김형태 교육의원 당선자 그리고 많은 우리회 자문위원과 고문님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박노현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

께서는 일정상 참여하지 못하는 아쉬움에 비서관을 보내시기도 하였습니다.

모처럼 즐겁고 유익한 대화와 나눔을 가질 수 있는 시간과 자리를 통하여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와 주방에서 혹은 홀에서 자발적으로 늦은 밤까지 어려운 일을 맡아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 2010 지부지회장 연수 “길가에서 뒤돌아 보기”



2010전국지부지회장 연수가 지난 6월 25일부터 이틀간 충남 서천군 희리산해송휴양림에서 있었다. 경기 충남 경북 경남 전북 등 5개 지부, 13개 지회에서 참가한 이번 전국지부지회장 연수에는 본부 집행부와 회원 가족들을 포함해 총 27명이 함께 했다.

미술집단치료는 신현자 현 경북지부장과 손순일 전 상담원의 강의로 진행했고, 다이나믹요가와 스스로 몸돌보기는 서경자 현 감사의 강의로 진행했다. 처음으로 마련한 이번 지부지회장 연수는 지부지회장들이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 지부장 지회장 역할을 수행하며 겪는 어려움을 동료들로부터 공감받고 지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구성원들은 집행부와 함께 한 평가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재충전하는 의미있는 프로그램이었지만 좀 더 많은 지부지회장이 참여하지 않아 아쉬웠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신임지회장들의 실무역량강화 연수의 필요성 등이 대두되었다.

## ‘교육 독립 운동’의 새 햇불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후원 행사에 부쳐

어이가 참 없습니다, 생각하면 놀랍지요  
‘경쟁 경쟁’ 교육 정책 함부로 쓴 화살들이  
참교육 목마른 이들 가슴에만 꽃힙니다

날마다 명박 세상 참 자를 때립니다  
‘교육’도 포기하고 ‘학원’ 간판 달립니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 저들마저 모릅니다

교육 현실 절망하고 개탄하고 분노하여  
결연히 일어난 지 스무 해가 넘었건만  
아직도 상처난 이 교육 온몸에선 신열뿐

기가 빠진 이 교육의 신음소리 들립니다  
맥이 빠진 우리 교육 절규 소리 들립니다  
아이들 아우성 소리 가슴 치며 들립니다

이제는 홀로 서라, 뜨거운 하늘 명령  
권력의 그늘에서, 욕망들의 비겁에서  
떨쳐라 벌떡 일어나라, 햇불 다시 들어라

2010. 6. 19

고춘식(전 한성여중 교장, 교육희망네트워크 심의위원)

## 2010년 25차 입시총회 및 여름연수

일시 ● 2010년 8월 21~22일 (토~일)  
장소 ● 대전 계룡산 동학산장  
대상 ● 대의원 및 회원

※정관개정안(초안)은 본부 홈페이지 소식마당 > 일림 / 소식 참조

### 이달의 보도자료

전문은 홈페이지 성명서/보도자료 참조

- 6.03 [논평] 6.2선거결과-MB식 경쟁만능, 특권교육 정책 전면 수정되어야한다  
6.14 [기자회견문] '조중동 종편' 위한 수신폐지 인상추진을 중단하라

- 6.29 [보도자료] 2008~2009년 학부모상담실 상담활동 사례집 발간  
[기자회견문] KBS 수신료 인상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이달의 주요기사

- 02 기획특집  
6·2 지방자치선거 이후 우리회가 나아갈길  
07 교육자치  
학생인권조례  
10 지부지회 소모임  
울산지부 청소년모임

- 11 상담실  
절도죄라고 퇴학조치하는 건 가혹하다  
14 언론정보출판  
학부모가 보는 KBS 수신료 인상  
15 사설  
누구를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인가

# 6·2 지방교육자치 선거 이후 변화된 상황과 우리회가 나아갈 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회 모든 지부 지회는 물론 본부까지 애를 쓴 결과,  
우리 교육마당에 개혁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치밀한 상황점검과 아울러 변화를 위한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하여 5면에 걸친 기획 특집을 마련하였습니다. <편집자주>

혁신학교와 학부모의 역할 \_ 2~3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를 제대로 살려 나가자 \_ 4면

이것만은 바꿔보자-학생 수련활동과 수학여행 \_ 5면

의정지기단 활동을 제안하며 \_ 6면

새로운, 진보 교육감 시대라고 합니다. 학부모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기대입니다. 우리교육이 변화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열망입니다.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에서 이제 우리는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우리는 투쟁하고 요구하는 위치였다면 이제는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만들고 이루어 가야하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우리회의 역할변화에 대한 교육운동진영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해야 하는 공간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만큼 해야 할 일도 많아졌으며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힘도 내외적으로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학교 참여 활동, 학부모 교육사업 등 우리회 사업도 예전보다는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관심, 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 등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가 제대로 구성, 운영되어야 합니

다. 그래서 진보 교육감을 지지했던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요구하고 주장했던 여러 가지 교육의제를 실행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과 구체적인 실천역량을 한데 모아야 합니다. 4년 후의 성공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교육에 대한 변화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한 4년의 실험으로 막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회의 새로운 역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역과 학교에서 학부모 사업을 제대로 잘 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현 시기 우리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취임 이후 변화된 상황에서의 우리회 활동 방향과 사업 내용, 활동 방식에 대한 깊은 토론과 고민이 요구됩니다. 새로운 활동을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역량도 필요합니다. 선거 이전부터 미리 예견하고 준비한 일들이 아니기에 어렵게 다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러나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의 우리 활동과 경험을 정리하고 재구성하는 의지가 있다면 가능한 일을 중심으로 해 나가면 충분합니다.

진보 교육감이 당선 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교육감의 공약을 분석하여 의미 있는 공약을 찾아내서 공약 이행 요구를 지속해 나가는 활동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치단체 후보가 당선된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활동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교육관련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자치단체장이 많습니다. 시민단체로서의 견제 역할 뿐 아니라 제도권 내에서의 참여활동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기회가 조속히 마련되길 바라며 많은 의견과 제안 바랍니다.

윤숙재(정책위원장)

## 혁신학교와 학부모의 역할

### 혁신학교의 등장 배경

한국교육이 혁신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지난 20년 간 무수히 나온 바 있다. 그리고 정부도 계속 처방을 내놓고 '교육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5·31교육개혁 조치를 내놓은 이후 역대 정부의 공교육개혁은 입시경쟁교육을 넘어서서 교육의 다양화와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꾀하고, 학생의 창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며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교육 공급자 대 수요자라는 시장주의적 담론에 기초한 한계와 입시경쟁교육을 넘어설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다양화, 자율화를 내건 결과, 학교교육의 시장화, 사교육의 팽창, 특목고를 비롯한 귀족 학교의 양산 등 부작용만 잔뜩 만들어내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고통의 늪으로 몰아넣고 말았다.

정부가 교육개혁 조치를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사교육이 팽창하고,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만 가는 현상 속에서 이명박 정부는 '공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 부담 절반 축소'라는



남한산초등학교 학부모 박진현님 제공

매력적인 공약을 내걸고 출범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은 학교자율화, 교육다양화를 주요 방안으로 내걸었으나 일제고사와 학교 성적 공개, 자사고, 학교선택제 등으로

학교 간, 학생 간의 입시점수 경쟁을 극대화시켜, 도리어 사교육의 팽창을 가져왔다. 현재 우리나라 학생의 공부시간은 OECD 소속 국가 중 2위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최장 시간이고, 사교육비 지출은 최고이며,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는 꼴찌이다. 학생들의 스트레스는 정신질환과 학원폭력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진보 세력과 전교조는 정부의 정책을 비판해왔다. 그러나 대안으로 내놓은 것은 원론적 수준에 불과했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그 결과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교육 의제를 선점당하고 말았다. 그 뒤 민주진보 세력과 전교조가 실천적으로 내놓은 것이 무상급식과 혁신학교였다. 2009년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제기하고, 2010년 교육감선거에서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일제히 공약하여 무상급식과 혁신학교가 전국적

교육 의제로 부각되었다.

혁신학교가 교육 의제로 부각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지난 10년 간의 치열한 운동의 결과이다. 경기도 남한산초등



학교에서 비롯된 작은학교운동이 2007년 교장공모제 시범 실시를 계기로 확산의 기회를 맞이하여 경기도 조현초등학교, 충청남도 홍동중학교 등 모범 사례를 낳게 되었고, 이어 2009년 김상곤 교육감 당선을 계기로 혁신학교라는 교육청의 학교정책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런 운동의 발전과 활동 공간의 확대에 따라 작은학교 만들기, 교장공모제 학교 운영, 혁신학교 만들기 등을 추진해온 운동 주체들은 2009년 6월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바 있다.

### 혁신학교의 상과 운영 원리

혁신학교는 한마디로 말해 공교육혁신의 모델 학교이다. 때문에 혁신학교는 공립학교 혁신의 출발점이자 확산의 거점인 것이다. 학교혁신의 모델로서의 혁신학교는 기존 학교의 관행을 벗어나 새로운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학교운영체제, 교육과정 등 모든 면에서 혁신하고자 하는 학교이다.

혁신학교는 배움(인성, 지성)과 돌봄(건강, 안전)의 책임 교육을 실현하고, 학생·학부모·교원·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가 서로 소통하는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문화 공동체로서 모든 학생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학교로 규정된다. 즉 혁신학교는 기존의 입시중심, 관료주의적 교육관행을 혁파하고,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여 모든 학생의 성장과 행복이 보장되는 배움과 돌봄의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복지 실현과 수업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혁신을 추진하는 학교이다.

혁신학교는 교원·학생·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모든 학교 구성원이 주인이 되어 학교 실정과 주어진 여건에 맞게 실현 가능한 것부터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인 과제로 나누어 차례차례 해결하여 궁극적으로 완성된 학교혁신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협력과 참여의 새로운 학교문화를 형성해야 혁신학교 구성원의 의지에 기초하여 혁신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다.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추구하게 되며 교육과정의 특성화와 다양화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성과 책무성 중심의 학습공동체 구축, 교수-학습 중심의 운영 시스템,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 확대를 필연적으로 연계하여 실현해 가게 되는 것이다.

### 혁신학교 추진 전략과 추진 방향

그 동안 정부에 의해 추진된 바 있는 모든 학교혁신 조치가 실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으나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지적되는 것은 주체의 자발적 노력보다 행정적 절차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학교장과 교사·학부모·지역사회의 자발적 노력이 기반이 되어야만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 교육청과 제도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학교혁신 노력은 너무 힘이 든다. 반면 주체의 자발적 노력이 바탕이 되지 못하는 학교혁신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그동안 정부의 도움 없이 주체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추진되어온 학교혁신 노력이 혁신학교 정책과 만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혁신학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과 세심하고 완강한 추진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적은 수의 학교에서 시작하여 차츰 확산시켜 가야 한다. 막연한 가능성과 의욕만 앞세워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추진 주체와 주체의 능력이 갖춰진 정도에 맞춰서 혁신학교를 선정하고 추

진해야 한다. 현재 혁신학교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대단히 크지만 혁신학교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주체의 준비는 취약하다. 직접 교육을 담당할 교사들의 연구실천 모임, 지원을 담당할 교육청과 연구자, 전문가 집단, 학교 중심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학부모 조직 등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 준비 없는 의욕은 과욕에 불과하다. 초기의 혁신학교는 엄선되어야 한다.

첫째, 혁신학교의 교육목표와 운영원리를 견지하는 학교에 한해 혁신학교로 지정해야 한다. 최소한 그 교육목표와 운영원리는 입시·지식 중심의 교육을 타파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육 주체 간의 상호 협력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

둘째,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는 준비된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해야 한다. 교사와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학교장,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이 일정하게 확보된 학교여야 한다.

### 학부모의 역할과 과제

혁신학교 정책이 성립하게 된 것 자체가 학부모들이 선거에서 지지해주었기 때문이다. 혁신학교에는 학부모들의 간절한 소망이 배어 있다. 따라서 혁신학교의 성패는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혁신학교를 요구하고, 지지할지 여부에 달려 있다. 혁신학교를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유권자로서, 여론 형성자로서의 학부모 손에 달려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이 있다.

“혁신학교는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모든 학교 구성원이 주인이 되어 학교 실정과 주어진 여건에 맞게 실현 가능한 것부터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인 과제로 나누어 차례차례 해결하여 궁극적으로 완성된 학교혁신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

첫째, 직접 교육을 담당할 주체는 교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학부모의 소원이 간절해도 교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학교혁신은 불가능한 것이기에 교사와의 소통과 협력의 과정을 제대로 거쳐야 한다.

둘째, 혁신학교를 요구하는 학부모의 혁신학교에 대한 구상이 구체화 되고, 올바른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막연한 요구와 상호 모순된 요구가 뒤엉킨 상태에서는 추진



남한산초등학교 학부모 박진현님 제공

동력이 제대로 형성되기 어렵고, 혁신학교가 추진되더라도 곧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셋째, 요구하는 위치에서 벗어나 학교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자세와 의지를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참여와 협력이야말로 혁신학교를 추진하는 핵심 동력이 아닐 수 없다. 학부모의 참여와 협력의 질과 양에 의해 혁신학교의 성패가 갈릴 것이다.

넷째, 내 자녀 내 학교에 머물지 않고, 지역과 교육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를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혁신학교는 내 자녀가 다니고, 행복을 누려야 할 학교를 넘어서는, 지역의 다른 학교들, 나아가 한국의 모든 학교를 혁신할 출발점이자 모델로서의 학교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혁신학교를 요구하고 추진하는 학부모의 움직임이 조속히 조직화 되고 체계화 되어야 한다. 중구난방으로 요구되고 추진되어서는 혁신학교 만들기에 기여하기보다는 잘못된 욕망의 분출로 오도되고 때 이른 실망감으로 귀착될 수도 있다. 학부모 단체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이 조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학부모를 위한 혁신학교 설명회, 연수, 학교탐방 등과 혁신학교를 갈망하고 추진하는 학부모 간의 소통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별 지역별로 학부모와 교사 간의 소통과 협력의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학부모와 교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실천 모임을 당장 만드는 것이라 하겠다. 혁신학교를 요구하고 추진하는 단계부터 교사와 학부모 간의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 혁신학교 추진을 중심으로 지역의 풀뿌리 교육의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이 혁신학교가 학교혁신의 진정한 출발점이 되는 모습일 것이다.

황호영(북천중학교 교사)



# 진보교육감 시대

##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를 제대로 살려나가자”

###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법으로 보장하는 유일한 제도이기에 우리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와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아이들에게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주고 학교 교육을 발전시키는데 주력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으로 제정되면서 도입된 지 올해로 15년이다(국·공립학교 1996년, 사립학교 2000년). 처음 도입될 당시부터 우리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여러 교육시민단체들과 함께 학부모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해 왔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과나 보람, 의미보다 이 제도의 기형적 태생과 한계가 단위학교의 민주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유명무실함으로 인하여 독립투사가 되어야 하는 현실에 회의감과 열패감이 팽배해 있다. 그러나 6·2 지방교육자치선거에서 우리 학부모들은 이명박 정부의 특권교육과 비리교육을 날카롭게 심판하였고, 날로 심해지는 교육계의 권위주의와 비민주성을 바로 잡기 위해 전국에서 6명의 진보교육감을 선출했다. 우리 학부모의 손으로, 우리 시민의 손으로 이 땅의 죽어가는 교육을 다시 살리기 위해 교육감의 권한을 찾아온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학부모선진화방안과 학부모정책에 대해 우리는 단위학교에서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을 올곧게 세우고 학부모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여 학부모의 대표성을 살려야 한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육 주체들이 학교운영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운영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면 학교운영의 민주화와 투명성이 보장되기에 친환경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신장에도 근간이 된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많겠지만, 우리회는 ‘학부모위원의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역점으로 두어야 한다. 당장 법 개정이나 조례 제개정 없이도 교육청의 지침과 지도감독, 단위학교의 교육주체들이 협력과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것들부터 바뀌어 나가면서 향후 법규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부모위원의 대표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하다. 그간 우리회에서 15년 동안 주력했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가 최근 약화되었지만 내년부터 다시 학교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부지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홍보와 학부모교육을 준비하면서 단위학교와 교육청에 그간의 관행들을 개선하는 요구를 강력하게 해야 한다. 이를테면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학부모총회에서 직접선출을 통하여 대표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선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요



구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총회를 저녁이나 주말에 개최하고 학부모위원 선출을 우편투표나 인터넷투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볼만하다. 그리고 학부모위원 연락처를 홈페이지에 알려 학부모들이 자유로운 의견과 건의를 할 수 있게 하고 소식지도 발간하면서 학부모회 등에도 학부모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회가 학생인권운동과 더불어 그동안 주장해왔던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관은 진보교육감 시대에 뿌리내려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는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요즘처럼 학생인권조례운동 등 학생인권 신장 여론이 활발한 시기에 학교현장에서 실천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시간을 학교 측에 맞추는 것을 지양하고 직장인인 학부모위원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저녁 또는 주말에 개최하며, 안건 및 회의 자료를 회의 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회와 학부모의 회의 참관을 독려하고 발언기회를 확대하도록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예·결산 소위원회, 학교급식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좀 더 심도 있고 전문성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교육청의 지도감독 강화는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에 결정적으로 작동한다.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홍보·교육하고 엄격하게 지도관리하는 지침 속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무력화하는 학교관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간 교육청은 감사권한도 전무한 수준이었고 대부분 학교장 편들기로 일관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전반에 대한 전향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학교 현장에 다시 내려 보내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리고 내실 있고 체계 있는 학교운영위원 교육은 필수이므로 다년간의 활동 경험이 풍부한 우리회원들은 교육청의 학교운영위원회 강사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학부모회는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의 토대

이명박 정부는 학부모선진화정책을 발표하면서 법적 위상을 갖는 학교운영위원회보다 학교장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한 학부모회를 재정적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였다. 따

라서 단위학교에서는 학부모회의 위상을 더 강화하였고 일부 학교장은 학부모회가 법제화되었다며 호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와 더불어 학교장들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의 유명무실화에 앞장섰고, 또 교육청은 이러한 학교장을 비호하면서 학부모의 민원을 무시하는 등 교육청의 높은 벽은 민주적인 학교를 열망하는 학부모에게 무기력 그 자체였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학부모회가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학부모의 대표기구로 바로 세워야 할 때가 왔다.

먼저 학부모회는 학생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권리와 의무를 실행하는 단위로 재학생 부모에게는 예외 없이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부모총회에서 선출되는 학부모회장은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어야 하며 학부모회 독자적 규약에 의거한 집행과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학교 현실은 아이가 주요임원인면서 경제력과 시간이 있는 학부모에게만 특별히 피선거권이 주어지며 미리 학부모회장으로 내정된다. 학년학부모회장, 학급학부모회장도 관행적으로 내정되는 것은 별반 다를 게 없다. 학교 구성 주체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운영구조를 만들고 학부모의 대표성을 위해 학부모회의 민주적 선출과 학부모 자치활동이 보장되어야 학교운영위원회의 올바른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그리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의 대표로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 학부모위원은 개인 의견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회의 활동보고는 물론, 학부모회에서 안건을 논의하고, 또 다른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를 연계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회의 정기총회·임시회, 학년별 회의·학급별 회의를 정례화하여 학년별, 학급별 교육활동에 관한 의견 수렴과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한걸음 더 나아가 단위학교 학부모회는 다양한 사업과 마을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동체적 의식과 활동 기반을 다져야 한다.

학부모 교육사업으로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단계에 따른 자녀 이해를 위해 자녀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갖추기와 인터넷 중독 예방이나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갈등해결, 진로교육 등 실용적인 학부모 교육 사업이 요구된다. 또한 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교육, 학부모 교양강좌, 봉사활동(명예교사, 급식봉사 등)이나 저소득층, 기초학력부진 학생 등 공동체의 동반 성장을 위한 멘토 활동과 아울러 지역 시민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마을공동체로서 지역현안에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육 주체들이 학교운영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운영구조를 정착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전은재(교육자치위원장)

# 이것만은 바꿔 보자

## 학생 수련활동과 수학여행

난립되어 있는 열악한 환경의 사설 수련원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학년별로 무자격 교관들에게 맡겨져 전혀 교육적이지 않은 병영체험, 극기훈련 수준의 반복적인 체험, 수련 활동을 받고 있다. 수련활동 관련 교육계 비리 또한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주제와 테마가 있는 소규모(혹은 반별) 수련활동, 수학여행을 기획하고 개별교사가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교육청과 학교행정의 총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글은 현재와 같은 수련활동과 수학여행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한 방안이다.

수련활동,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생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식단과 사용시설 그리고 프로그램 질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다. 일부 학교나 수련시설에서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업체의 영업에 의해 학교장 독단으로 수련시설을 선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학부모나 교사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제안한다고 해도 학교장이 딴 마음을 먹고 있다면 학교현장에 질 좋은 수련활동, 수학여행이 정착될 수 없다.

그래서 시도 교육청 안에 가칭 '교육발전위원회' 또는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한다. 그리고 그 위원회 안에 수련활동, 수학여행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많은 토론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개선안이 학교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는 상설 점검 기구도 함께 구성했으면 한다.

### 수련활동, 수학여행에서 바뀌어야 할 것들

경비사용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업체선정과 정, 프로그램 세부적인 내용의 기본 메뉴얼을 만들어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교간의 비교검토가 될 수 있다. 수련활동, 수학여행 경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또한 학교장과 업체 간의 거래에서 가장 많은 돈을 남길 수 있는 것이 밥값과 교통비이다. 수련시설 사용료에서도 남길 수 있지만, 학생들이 가장 불만스러워하는 것이 밥과 프로그램 질이다. 따라서 학생 수와 밥값을 정할 때 식단메뉴를 미리 정하고, 선정된 업체는 식단 메뉴를 업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식단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이 이동하는 버스를 예약할 때 학교가 일정 상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한 학교에서 10대 이상 예약할 때는 반드시 적정가 입찰을 하도록 해야 한다. 버스는 먹는 식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적정가 입찰을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 적정가 입찰을 해야 학교장과 오가는 돈거래를 막을 수 있다. 아울러 버스 운송업체도 버스 보유대수, 차연식, 기사경력 등 학교와 계약을 하면서 필요한 메뉴얼을 업체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계약한 학교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또한 버스와 숙소를 묶어서 계약하는 것을 막고 분리해서 계약해야 한다.

체험, 수학여행을 가는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 모두들 성수기에 가기 때문에 버스요금, 숙박요금이 비싸다. 가는 곳마다 복잡하여 줄서다 시간을 다 보내기도 한다.

학교 자체에서 테마 있는 체험활동이나 수학여행이 아닌 여행사가 짜놓은 프로그램으로 움직이고, 거의 모든 학교가 같은 곳을 가기 때문에 복잡하기만 할 뿐 제대로 체험을 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부산은 초중고 90% 이상이 에버랜드를 끼워서 일정표를 짠다. 당연히 경비도 올라간다. 6~10학급의 거대 학급이 함께 하는 체험학습보다는 2~3개 반별로 움직이는 동선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수학여행이 아닌 당일 체험 학습

의 경우에는 소규모로 분산하거나 반별 체험학습도 고려할 수 있다.

식단이 너무 형편없다. 부산의 모 중학교 학부모가 아이가 짝어온 수학여행 식판을 언론에 고발하고, 원가 500원도 안 되는 식사가 5000원으로 계산되고 있음을 알린 적도 있다.

그러므로 학교운영위원회(체험학습 소위원회)에서 직접 숙소를 방문평가하고 식단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업체 선정과 프로그램 개선안

투명한 절차를 통해 업체를 선정했는가를 학교장 평가항목에 넣도록 한다.

수련시설, 수학여행 숙박지에 대해 시교육청이 기본 메뉴얼을 만들어 업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학교나 학부모는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기본 정보를 얻도록 하고, 업체 간에 비교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생활권이 같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련장소와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제가 있는 수련, 수학여행 프로그램이 되도록 유도한다. (중고교의 경우 학생회가 주체가 되어 수학여행을 기획하는 과정도 교육의 한 과정이다. 장소와 프로그램 선택에 학생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도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다.)

수련회나 수학 여행을 마치고 그 평가서를 작성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한다. 평가서는 기본 문항을 비슷하게 해서 업체 간의 평가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한다.

시교육청에서 만든 메뉴얼을 바탕으로 수련시설, 수학여행 숙박지에 대해 평가를 받도록 하고 평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학교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청소년위원회나 관련된 기관과 함께 수련시설 상시 점검이 이뤄지도록 한다.

시교육청 내에 수련활동, 수학여행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한 팀(지원센터)을 구성하도록 한다.

여성가족부 청소년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센터와의 연계 속에서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방안도 검토 할 수 있다.

한중권(경남지부 감사)





# 의정지기단 활동을 제안하며

▶교육감 및 교육의원들의 공약사업들은 시도의회 교육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되게 됩니다.

▶교육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지원, 감시, 모니터, 정책 제안까지 확장된 개념의 의정지기단 사업으로서 향후 4년간 우리가 진전시켜내야 할 교육의제를 힘 있게 추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진보적인 교육상임위원이 다수인 지역은 진보적인 의원들의 활동과 추진하고자 하는 진보적 교육의제들을 적극 알려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며 소수인 지역은 진보적인 의제가 실제 관철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모니터하여 발표하는 역할이 강조 될 수 있습니다.

## 의정지기 활동 대상 :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일반 자치단체, 기초 단체)

교육상임위원회 의정지기 활동이 중심이지만 일반자치단체의 교육 관련 공약이나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예산 또한 증액될 전망인 상황에서 지역 사정에 따라 시도 광역 전체 혹은 기초자치단체 의정 활동으로 확대 가능 (지역 실정에 맞게 선택).

## 위상과 역할

공약 시행 여부 점검, 지원, 감시, 정책 제안, 결과 언론 발표, 토론회와 간담회

## 구성과 운영

우리회를 포함하여 지역 시민단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열린진 구조, 지역의 역량과 사정에 따라 주체적으로 결정

## 의정지기단 교육프로그램

▷공약집 수집과 취합, 분석(인수위 보고서 수합). 기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교육관련 사업 공약과 사례 수집

▷교육상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이해(교육, 교육청 구조 알기 포함)

▷의정지기단 활동 사례와 운영에 대한 이해(교육)

▷자치단체의 예산 바로 보기 교육(예산 분석 교육)

지난 시기 인천, 광주, 부산에서 의정지기단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부산지부 사례가 다른 지역 의정지기단 활동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윤숙자(정책위원장)

부산교육의정참여단은 2000년부터 꾸준히 참여하였으나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주거나 자리를 배정해 주기까지는 힘났했습니다. 2003년 교육개혁연대 이름으로 교육청에서 의정참여단 발족식을 하면서 교육위원회 의장 면담을 통해 모니터단 책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교육개혁연대 이름으로 했지만 참교육학부모회가 중심이 되어 연초 일 년 계획서를 뽑아(중간에 일정 변경되는 수도 있어서 자주 홈페이지 들어가 봄) 각 단체 모니터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은 교육청 구조알기, 지난 회의록 공부하기, 교육청 예결산 보기 등이었습니다. 일 년에 한 번 의정 참여 기록을 공개하고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지역 내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는 전문을 실어주지 않았지만 인터넷에는 우리가 낸 전문이 올라가면서 파급효과가 컸습니다. 이듬해부터 교육위원회에 분홍보자기(서류)가 등장하고 너도나도 우리를 의식한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까지 모니터하면서 바쁘고 힘들었지만 큰 보람이 있었고, 시의회에

서도 우리가 오는 날은 긴장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부터의 의정참여는 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시의회 교육상임위가 되면서 교육 관료들이 중심이던 상임위원회가 아니기에 분위기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우리도 시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이해하기부터 공부를 다시 해야 할 것이고 시민연대와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 부산지부 의정지기단 활동 사례

김정숙(부산지부 정책실장)

이번 선거에서 부산에서도 시민후보를 내면서 시민단체들과 깊은 연대를 하면서 참교육학부모회 또한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앞으로 의정참여단 활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 참여단 연수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는 교육희망네트웍 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교육감 당선자와 이미 면담을 했고 교육청이 힘을 받으려면 이제는 교육청만이 아닌 교육상임위원회 모니터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의정 참여단 평가 지표-부산>

일자	10. . .		회의명		의원명		기록자			
평가항목			획득 점수	기준 점수	조정 폭	착안사항				비고
개 인 일 반	참여성실 (출석,이석)		8	±2	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고 시간을 잘 지켰다					
			6	±2	시간을 잘 지키며 1차례 정도 자리를 비웠다					
			4	±2	개회(시작)시간에 늦거나, 자리를 2~3차례 비웠다					
			2	±2	결석, 20분 이상 지각, 4차례 이상 이석 등					
	태도진지 (자세,회의법준수)		8	±2	회의 참여에 매우 적극적이며 모범적이다					
			6	±2	회의 참여에 비교적 적극적이었다					
			4	±2	회의에 불성실한 편이다					
			2	±2	매우 불성실하게 회의에 참여하였다					
	공익대표 (공정한 시각)		9	±1	교육전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공정한 시각 유지					
			6	±1	교육전반에 대한 이해가 있고 일반적 시각 유지					
			3	±1	교육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편파적 시각 유지					
개 인 별 전 문 성	사전 분석	현장조사	9	±1	현장,설문 및 관련내용에 대해 매우 충실히 조사했다					
			6	±1	현장,설문 및 관련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조사했다					
		3	±3	현장,설문 및 관련내용에 대해 사전 조사 노력이 없었다						
	자료검토	9	±1	제출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를 정확히 파악했다						
		6	±1	제출된 자료를 어느 정도는 분석했다						
		3	±3	제출된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질의수준	9	±1	구체적이며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질문이 많았다						
		6	±1	충실한 질의를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보인다						
		3	±3	단편적·형식적·부적절한 질의에 그쳤다						
	감사내용의 전문성	9	±1	대상부서의 업무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6		±1	대상부서의 업무 특성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3		±3	대상부서의 업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정책 대안 개발·제시 총계			5	±3	교육정책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의원평가시 참고할 사항

가점 사항	감점 사항
<b>1</b> 새로운 이슈 발굴	<b>1</b> 중복질의(타의원과 차별성 없는 질의)
<b>2</b> 관련자료 및 사례의 인용, 현장의견 청취(자료조사, 설문조사 등 근거자료 제시)	<b>2</b> 이해집단의 편파적 발언(공정성 상실)
<b>3</b> 사실관계 및 문제 핵심파악 등 논리적 추궁(일문일답능력)	<b>3</b> 의제외 발언 / 알맹이 없는 발언
<b>4</b> 법령위법, 예산낭비 등 구체적 지적	<b>4</b> 봐주기식 질의
<b>5</b> 집중 추구 및 추가 질의	<b>5</b> 저질 인신 공격
<b>6</b> 집행부 제출 자료에 대한 지적	<b>6</b> 의사진행 방해
<b>7</b> 대안이 적절한가(예산상, 법령상, 제도의 문제 등을 포함하여 제시)	<b>7</b> 소관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질의
<b>8</b> 지적사항 시행여부, 사실관계 확인	<b>8</b> 근거가 미약한, 억지주장, 강요성 발언
<b>9</b> 지적사항 미시행에 대한 원인고 향후 조치 계획 약속(사전 확인 후 질의 여부)	<b>9</b> 준비부족, 보고서 의존한 단답형 질의
<b>10</b> 단순확인성, 추상적, 추측성 문제제기 및 대안제시 수준, 당부성 질의	<b>10</b> 중언부언

# 학생인권조례, ‘민주진보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

진보교육감 시대가 열리면서 학생인권조례의 현실화가 한층 가까워졌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본격 추진하고 이에 대한 보수진영의 거센 반발이 일면서 전국적 쟁점으로 부상한 바 있다. 올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여러 지역에서 공동 공약으로 등장했고, 지난 5월 10일에는 12개 지역 ‘민주진보교육감’이 공동으로 조례 제정을 약속하는 협약식이 진행되기도 했다. 서울지역 박노현 당선자의 경우,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해 올 하반기부터 조례 제정이 서울에서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 조례제정이 추진되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보수진영은 학생인권조례는 ‘반(反)교육’이다, ‘좌빨 교육감의 학교 장악 시나리오’다 등 온갖 이유를 가져다 붙이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경기도교육위는 사회적 논의가 성숙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조례 심의조차 유보시켰다. 왜 학생인권조례는 그들에게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학교를 뒤흔드는 문제로 받아들여졌던 것일까?

## 학생인권조례, 어떤 내용이 담기나

학생인권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학생인권의 구체적 기준을 공식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학교는 체벌, 언어폭력, 강제이발, 강제야자·보충, 종교강요, 성적에 따른 지원 차별 등 다양한 인권문제가 농축돼 있는 공간이다. 그런데 국제인권기준이나 변화한 사회인식에 따르면 분명 문제적인 행동이 ‘교육’이나 ‘관행’, ‘필요악’ 등의 명분으로 덮여지거나 인권침해임이 인정되지 않아왔다. 그 때문에 생활지도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의 숨바꼭질은 가속화되

고, 학생은 학교와 교사를 전혀 신뢰할 수 없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이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 참여, 복지, 안전 등에 대한 권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명시적·음성적 형태의 각종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해야 할 이유다.

기준만 있다고 학교 현장이 바뀌지 않는다. 막상 인권문제가 일어나도 구조적 약자인 학생·학부모가 학교 안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결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학교장 독단으로 학생인권을 후퇴시킬 조치가 취해져도 막상 호소할 곳도 마땅치 않다. 교육청의 민원 해결 방식은 너무 굵뜨거나 미온적이고 사법기관은 너무 멀리 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인권문제 해결을 전담하여 조사·해결하는 권리구제기구를 별도 설치하고, 권한과 기능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별 사건들을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꾸준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교육청 차원에서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단위학교를 압박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 차원에서는 지속적인 인권교육이 이뤄지고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계획이 수립·집행되어야 한다. 이런 노력들을 자발적으로 이끌어내는 것도 좋지만 제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조치들과 책임주체를 분명히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학생인권조례의 반대편엔 무엇이 있나

최근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힘쓰겠다’는 공약을 내건 학생회장 후보가 학교의 탄압을 받아 징계위기에 놓인 사건이 있었다. 학생인권조례를 언급하지 말라는 교장과 학생부장의 ‘지도’에 따라 후보 연설문을 수정해야만 했던 학생은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써서 학생들에게 돌렸다. 학교는 학생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교사를 비방했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위원회를 여는 보복을 감행했다. 이 사건을 보면 보수진영이 왜 학생인권조례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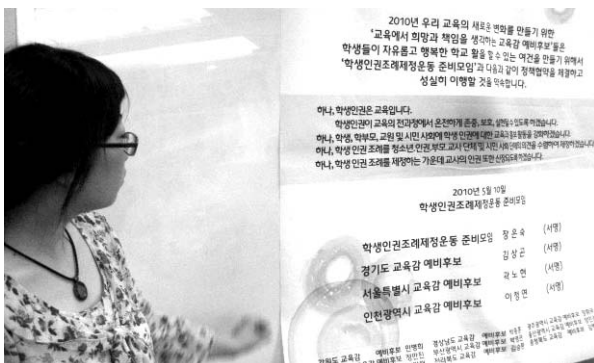
흔히 생각하듯 학생인권조례의 반대편에는 ‘교권’이 놓여있지 않다. ‘무질서’도 아니다. 학생인권의 반대편에는



‘강압’과 ‘독재’가 놓여있다. 보수진영은 학생 위에 군림하는 학교가 깨지는 것을, 권력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고 의문을 갖는 이들이 생겨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2008년 촛불집회의 주역이었던 10대들을 다시 학교 안으로 잡아들이기 위해 학교규정과 일제고사와 같은 경쟁교육이 강화됐던 이유다. 학생인권조례의 또 다른 반대편에는 특권과 차별이 놓여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문 안으로 들어올 때 ‘합리적 경쟁’의 외양을 쓰고 진행되는 ‘특권의 재생산’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어진다. 가혹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학생들만 선별 지원하고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부진아, 부적응아, 문제아 등의 딱지를 붙여 학교 밖으로 내모는 시스템의 나사들이 하나씩 인권문제로, 차별문제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런 학교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특권교육 정책의 정당성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학생인권조례는 피폐해지고 폭력화된 학생-학생, 교사-학생, 학부모-학생 간의 관계를 본디 자리로 되돌리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학생인권침해는 학생에 대한 불신 없이는 생산, 유지될 수 없다.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이 흔히 택하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 상대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신뢰할 수 없는 자기를 저주하면서 무력화되거나. 이런 경험을 내재화한 사람이 성인이 되면 곧장 ‘자유롭고 책임 있는 시민’이 될 수 있을까? 학생인권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라는 실천이 ‘민주진보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 학생인권 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발족식 & 기념 토론회

### 1부...서울본부 발족식

때 7월 7일(수) 오후 2시  
주요 내용 발족 취지와 경과보고 / 각계 인사 / 퍼포먼스

### 2부...발족 기념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의의와 방향> 토론회

때 7월 7일(수) 오후 3시  
주요내용

- 사회 :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여는말] 박경석(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  
[축사] 서울시교육감 / 서울시교육의원  
[발제1]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의와 쟁점 : 난대(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발제2]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추진방향과 과제 : 김재석(전교조 서울지부)  
[토론] ● 학생인권은 교권과 대립하나 : 조영선(서울 경인고 교사)  
●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제도상의 변화 : 하승수(전 제주법대 교수)  
● 학부모 입장에서 바라본 학생인권조례 의미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 광주학생인권조례 추진사례의 시사점 : 박고형준(광주학생인권조례제정추진모임)  
●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추진과정에서의 학생 참여 방안 : 학생 1인





광주지부

1. 창녕 우포늪 생태관에서
2. 우포늪에서 생명의 시작점을 보았습니다.



경기지부

교사 공무원 탄압중단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광양지회

1. 공 굴리고 왔습니다.
2. 두드리 6월 모임 했어요.



고양지회

1. 심학산 둘레길 걸으며 일손만남의 날 했어요.
2. 장미하우스 봉사활동 다녀왔어요.



울산지부

1. 2010년 1학기역사기행을 다녀왔습니다.
2. 북구 회원모임 최선미 지부장님 텃밭에서 갓 캐온 상추와 맛난 강된장으로 쌈 싸먹었지요.



나주지회

내가 기록하는 금성산 사계





### 목포지회

1. 아이들과 함께 한 습지체험, 생태문화체험
2. 지난 6월 12일 영산강에서



### 마창진지회

1. 경남지역을 순회하며 그림자인형극 성황리에 공연 중
2. 거창 산청 함안 등을 순회한 그림자인형극



### 부산지부

1. 허남식 시장당선자 무상급식 무산 발언 규탄 기자회견
2. 시장 당선자 무상급식 발언관련 일인시위



### 상주지회

1. 낙동강을 그대로 흐르게 해 주세요.
2. 어린이들의 낙동강 순례, 지울스님과 한때





울산지부 청소년 모임

# 무한한 우주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길?

## 청소년인문학토론에서 묻다



지난 6월 12일 폐다고지에는 인문학 토론에 참가하는 친구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연극을 보기 위해 모였다. ‘미누, 시즈위 밴즈를 만나다.’ 작년 한국에서 강제 추방당한 네 팔 이주 노동자 미누와 지금 월드컵으로 한창 떠들썩한 남아공의 흑인 노동자 시즈위 밴즈. 우리는 이들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 사회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사람들을 만날 터이다.

작년부터 울산 참교육학부모회와 폐다고지가 함께 시작한 청소년인문학토론은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년 토론마당 <정세청세>(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청소년 세계와 소통하다)와 책읽기, 그리고 연극이나 영화 보기 등으로 이뤄진다. <정세청세>는 청소년들이 기획하고 진행하는 토론 마당으로 자유·공감·의심·평등·소통·신념·실천 등을 주제로 토론한다.

어릴 때와는 달리 커가면서 책을 점점 멀리하게 만드는

게 한국의 교육 현실이다. 영어니 수학이니 입시 위주의 공부에 정말 읽어야 할 책들은 읽지 못한다. 책 읽는 만큼 좋은 공부방법이 또 있을까? 쉽게 구할 수 있지,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또 스스로 읽으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지.(그야말로 자기주도 학습이 아닌가?)

청소년인문학토론은 성적이 아니라 공부를 하고자 한다. 누가 청소년들이 공부하기 싫다고 하는가? 모든 것이 부쩍부쩍 커가는 청소년기는 아직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다. 어렸을 때와는 또 다르게 더 넓은 세상과의 만남으로 더 많은 배움의 열망을 가지고 있다. 단지 남을 이기기 위한 경쟁을 가장 근본에 깔고 있는 성적 위주의 학습이 싫을 뿐이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경쟁과 강제학습에 어찌 재미를 느낄 수 있겠는가? 청소년들은 이러한 강제학습을 싫어하는 것이지 참된 공부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가을에는 부모님들과 함께 하는 토론회를 계획 중이다. 주제는 ‘공부의 본질을 묻다’이다. 모두 ‘공부, 공부’를 외치는데 정말 공부의 본질은 무엇인가? 사람이면 누구나,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공부는 삶의 실존방식이다. 그런데 그 본질을 묻지 않는다. 청소년인문학토론은 이렇게 청소년들과 어른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청소년들만 크라는 법이 없지 않은가? 어른(?)들도 계속 성장해야 한

다. 생각은 생각을 하는 가운데 살아있는 것이지, 생각을 멈추는 순간 생각은 더 이상 생각이 아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그 끝이 있는 게 아니다. 어른들 또한 공부하고 생각하고 삶의 가치를 부단히 생산하고 나누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눔이 좋은 생각과 가치를 나누는 게 아니겠는가?

세상이 모두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여겼던 어린 시절을 벗어나 무한경쟁의 사회에서 나 홀로 나 자신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고 있을 때 느끼는 그 막막함. 그 막막함에 우리 사회는 무엇에 의지하라는가? 학업성적만이 살 길이라 외치는 상황에서 어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인 자유로운 이성과 풍부한 감성이 숨 쉴 수 있을 것인가? 청소년인문학은 이런 대세에 굴종하지 않고 스스로 그리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생각하고 책을 읽고 토론하는 만남을 계속 가지고자 한다. 7월에는 <정세청세>와 더불어 『자칼과 기린이 춤출 때』라는 책을 읽고 우리들의 마음을 탐색하고 사람들과 비폭력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기대되지 않는가? 우리들 마음속에 얼마나 깊고 깊은 계곡이 있을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말’에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어떤 ‘힘’이 있을지? 나는 정말 궁금하다.

최수미(대안문화공간 품&폐다고지, 청소년인문학토론 기획)

## 아이와 같이 성장하는 엄마

중학생 딸들을 청소년인문학토론과 <정세청세>에 보내면서 기대한 것은 남이나 사회에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가치와 스스로에게 감동하는 삶의 방향으로 가는 작은 밑거름만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쉽지 않는 길이기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한 바람을 갖는 동기에는 내 삶이 10년 전까지 나침반이 없이 순응형으로 살았고 그 삶은 기대도 감동도 고통도 없는 ‘맛없는 인생’이었다. 그러던 내 삶이 참교육학부모회와 만남으로 방향전환이 시작되었고 인생의 맛있는 음식들을 찾는 여행이 시작되었다. 처음 참교육 문턱을 넘은 의도는 엄마표 영어소모임을 하기 위한 이기적인 의도였고, 학교처럼 높은 문턱이었고 버거웠다. 시간이 가면서 진정한 교육의 맛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기적인 내 교육관에 대한 부끄러움도 만나게 되었다.

아이들 프로그램을 몇 번 참관하면서 느낀 점과 얻은 점이 있다. ‘다름’을 알아가는 건강한 토론 문화와 사람 중심의 사회와 진정한 사랑과 자유 그리고 정의와 평등을 위해 한걸음씩이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모습만이라도 뿌듯함이 느껴졌다. 제2의 뇌가 만들어지는 시기인 사춘기 시기에 절실하게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했다. 정체성을 찾는 중요한 인생의 시기에 꼭 필요한 과정이었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머물러보는 중요성과 나와 다른 친구들의 생각 속에 토론은 서로에게 동기와 성장을 주리라고 믿기에 반가웠고 고마웠다. 교육관이 나와

다른 남편이지만 사회에 나가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지해 주었다.

또한 참관하면서 얻은 것이 있었다. 그것은 아이들이 하는 인문학토론과 <정세청세> 프로그램을 등대지기 지역모임에서 엄마들도 같이 해보기로 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잔소리가 아닌 부모의 삶으로 배우기 때문이고, 부모 역시 정체성 고민 시기에 삶의 가치관을 세우지 못한 사람이 87.5% 정도가 있다는 통계도 있듯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엄마의 교육관과 현실감각은 경쟁교육현실 속에서라도 점수공부나 유명대학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아이의 적성에 맞는 꿈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것(아이마다 기다려 주는 시간은 다를 것이다)이 진짜배기 현실감각과 미래지향적 교육관이라고 생각한다. ‘본능적 생존의 길’이 아니라 ‘적성에 맞는 꿈을 향한 길’은 나에게 기쁨이고 감동이며 남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인생이기에 기가 찬 맛이리라.

마지막으로 청소년인문학토론, <정세청세>, <정세엄세>(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엄마들 세상과 소통)의 토론의 장들이 전국으로 더 많이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다양한 작은 소모임이 동네마다 만들어져서 경쟁이 아닌, 함께 행복해지는 감동의 시너지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서미경(울산지부 회원)

## ‘왜?’ 라고 질문하고 답하게 하라

“엄마, 하늘은 왜 파랗고 비는 왜 와? 손가락은 왜 다섯 개야?”

아이를 키우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듯한 질문이다. “몰라도 돼!” “커면 다 알아!”라는 식의 불성실함으로 대답하는 엄마(부모)는 거의 없을 듯하다. 그러나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이가 몇 개의 질문을 더 하기라도 하면 그때는 짜증이 약간 섞인 목소리로 “니가 좀 더 크면 알아.”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는 식으로 얼버무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아이들은 초간편 질문 외엔, 나중엔 아예 이것조차도 하지 않게 된다. 이제 아이는 ‘왜?’ 라는 질문을 잊어버린 채로 살게 된다. 학교는 아예 ‘왜?’ 라는 질문을 폐기처분한지 오래다.

‘왜?’ 라는 질문이 사라졌다는 것은 대화와 토론이 사라졌음을 뜻한다. 우리는 ‘토론’ 하면 TV에나 나오는 무슨무슨 교수들이 주고받는 그런, 전문적이고 학문적인 것을 떠올리는데 진정한 대화와 토론은 바로 우리 일상 속에서 주고받는 ‘왜?’ 라는 질문들 속에 있다. 무엇보다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경청과 공감의 자세가 생기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도 스스로 알게 된다.

울산에서 청소년인문학토론 모임을 마련했다. 중학생 대상으로 매월 1회씩 만난다. 책을 보기도 하고 연극이나 영화, 숲 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 중이다. 아직은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서로 눈치를 보기도 하지만, 준비하는 이들의 소박한 바람은 오로지 하나뿐이다. ‘왜?’ 라고 질문하고 답하라!

신미정(울산지부 회원)



Q&A  
상담실

## 절도죄라고 퇴학 조치하는 건 가혹하다

**Q** 우리 아이가 아닌, 아는 집 아들이 절도죄로 퇴학조치 당했다. 일주일 전 쯤 이 학생이 학교 수련회를 갔는데 다른 반의 여학생이 돈을 모아서 샀다며 200만 원짜리 고가 카메라를 굉장히 자랑하고 다녔다고 한다. 수련회 등 야외 일정에는 그런 물건을 갖고 오지 않는 게 상식이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주의를 줬지만 이 여학생은 가지고 와서 자랑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학생이 어디서인지도 모른 채 카메라를 잃어버렸고 담임이 모든 학생의 짐을 뒤졌다. 그 결과 아는 집 아들의 집에서 카메라가 발견되었고 이 일로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3명은 퇴학, 2명은 방관죄로 정학조치 됐다. 학생 신분이고 아마도 장난으로 한 일 같은데 절도 전과가 있는 것도 아닌 처음 저지른 일을 가지고 퇴학조치 하는 건 너무 가혹한 일 같아서 어떻게 도와야 할지 자문을 구한다. 그 여학생 부모는 이 학생들을 형사고발도 해 놓았다. 중학교 때부터 한 동네에서 같이 학교를 다닌 처지에 너무 심한 일 같다.

**A** 퇴학조치는 학생징계 중 가장 최후의 방법입니다. 일이 벌어지고 불과 일주일 만에 퇴학조치를 할 만큼 학생징계위원회가 신속히 개최되고 징계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좀 이해하기 힘들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소명기회가 있었는지 다른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음 행한 행동에 대해 퇴학조치를 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이 그동안 학교생활 규정 위반으로 인한 징계나 벌점이 누적되어 있지는 않은지 알아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아이가 아니고 다른 가정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황을 좀 더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퇴학처분이 너무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징계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 학생징계위원회에 퇴학처분에 대한 재심의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학처분은 해당 학생의 삶에 미칠 영향력이 막대한 일이므로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어 재심 절차를 시·도 교육청에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은 학생과 학부모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므로 이 제도를 활용하도록 권해주세요.

또한 만14세 이상이면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형사 미성년자 관련법을 보면,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서 보호처분, 형벌 전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형법이 아닌 소년법을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형사적으로 미성년자의 나이는 만14세입니다. 이전에는 12세 미만은 형벌,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10세 미만으로, 소년법 적용 나이를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됐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전과기록을 남길 수 없다는 뜻). 10세 미만은 형벌, 보호처분 아무 것도 안 되므로 경찰한테 잡힌다 해도 가정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이 가능하며 형벌은 불가능합니다



(위에 써 놨듯이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형벌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서 보호처분, 형벌 전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형법이 아닌 소년법을 적용하는 특례를 부여합니다. 보호처분조차 못하는 만10세 이하를 제외하고 10세 이상 19세 미만 중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자는 우범소년으로서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 ▷ ~10세 : 형벌 X, 보호처분 X
- ▷ 10~14세 : 형벌 X, 보호처분 O
- ▷ 14~19세 : 형벌 O, 보호처분 O

## 학부모상담실 『2008·2009년 상담활동 사례집』 발간



학부모상담실에서는 전화와 사이버 상으로 접수된 상담사례를 분석한 『2008·2009년 상담활동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지난 2년간 상담활동을 통해 본 학부모의 가장 큰 고민은 자질·체벌·언어폭력 등의 교사문제(32%)였으며, 두 번째는 운영위원회·불법찬조금·비리·급식 등의 학교문제(31.3%)였다.

교사문제는 체벌과 교사자질에 관한 사항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여전히 학교 안에서 불합리한 체벌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겠다. 또한 학교문제 중 가장 심각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상담이었는데 이는 2008년 발표한 '4·15학교자율

화조치'로 인해 학교운영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이 학교장에게 독점되면서 학운위를 통한 합의와 조정이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 주된 요인이 되었다.

◎ 사례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교육학부모회(02-393-89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살과 여행



있지만 맘만 먹으면 빠질거야. 그러면 아마 옛날의 얼굴 라인이 나오겠지? 호호호' 하는 착각과 자위와 미루기를 반복하고 있다.

얼마 전 남편은 동료들의 말을 인용한다는 핑계로 드디어 나에게 살에 대한 경고를 해왔다. "내 생각은 아닌데, 00가 그러는데 정인이가 계속 살이 찐다고 걱정하더라. 진짜 내가 하는 말은 아니야. 진짜야" 아~~ 망치로 머리를 탕~하며 맞은 듯 강한 충격. 그러면서 덧붙이는 남편의 말은 나를 한 번 더 우울하게 만든다. "살 빼면 당신이 원하는

오늘도 거울 앞에 서서 내가 다이어트를 안 해서 그렇지 나도 살 빼려면 뺄 수 있어. 허리에 팔에 다리에 살이 붙 것 뭐든지 해줄게." '뭘야? 내 살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나 보지?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뭐든지 해준다고? 오호, 상품도 걸었겠다 그럼 한 번 해볼까? 이번에 큰 것 하나 달라고 해야지' 하는 맘으로 "그래? 그럼 나 살 빼면 여행 보내줘. 해외여행." "그래? 좋아. 어디 갈건데?" "음... 해외여행... 제주도. 그런데 나 혼자 가는 거다. 그리고 내가 누구랑 가든지 참견하지 않기." 소심하게 제주도 해외여행을 거는 나를 '그 정도 쯤이야' 하는 얼굴로 남편이 쳐다본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다. "그럼 몇 킬로그램 뺄거야?" 하고 묻는 남편에게 대답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3개월 동안 54킬로그램까지 빼면 보내줄게"하며 무리한 요구를 한다. 그 몸무게가 말처럼 쉽게 되는 몸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나에게 그 정도가 아니면 빼는 것도 아니라고 우기는 남편. 내 나이 40대인데 20대 같은 몸무게를 원하는 남편이 기가 막히기도 하고 이 사람이 여자의 몸무게에 아직도 환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약속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다 못 빼면 어쩔 수 없이 하는 생각에 덜컥 약속을 했다.

그 다음 남편의 말이 나의 맘을 들여다 본 듯 나를 더더욱 당황하게 만든다. "그럼 못 빼면 어쩔건데? 그럼 내가 여행 다녀온다." 오기가 생긴 나는 "뺄거야. 일주일을 굶어서라도 뺄다 빼" 하는데 "요요현상 없게 한 달 동안 몸무게가 지속되어야 인정할거야"라며 야박하게 나온다.

그렇게 약속하고 노력 없이 지나간 한 달. 어느 날, 9살 아들의 문장완성검사 항목 중 가족문항에 '우리 아빠는 멋지다' 라는 대답과 '우리 엄마는 똥똥하다' 라는 상반된 답을 보고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였다. 아들까지 엄마를 똥똥하게 본다는 서운함과 내가 누구 때문에 살 찼는데 하는 배신감까지. 남편의 말보다 아들의 말에 더욱 충격을 받아서 인지 조금은 빼보려는 노력을 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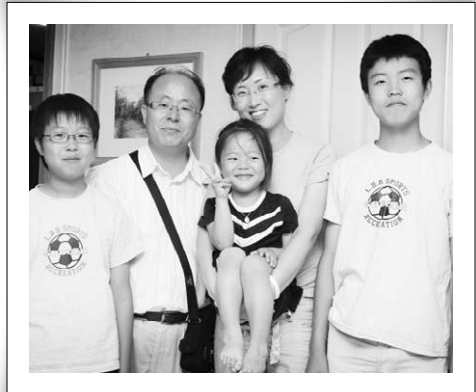
운동도 시작하고 미루던 일도 벌여보고 몸도 긴장해서 있어보고...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겠는데, 더운 여름에 월드 컵 응원하며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 잔은 오늘도 나를 유혹한다. '이번 한 잔만 먹고 났 또 빼야지. 내가 술만 아니었어도...' 아~ 과연 나는 3개월 후에 여행을 갈 수 있을까?

김정인(13기 상담원)



● 회원인터뷰\_ 박진희(거창지회 회원)

## 참교육학부모회 회원인 것이 자랑스러워요



### 본인과 가족을 소개해 주세요.

저는 경남지부 거창지회 회원인 '박진희' 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살다가 남편과 함께 농촌지역에서 살기 위해 13년 전 산골(해발 550고지) 오지에 이사와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목회하면서 현재 거창지회장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큰아이가 고3, 둘째가 중3, 늦둥이로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있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로 살기보다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아직도 공부중이고 지역 경로당에 다니며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과 지역사회복지프로그램을 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특히 교육문제에 있어 보람이나 어려움을 겪으신 일이 있나요?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도록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거창에 이사와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부터 지금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제도권 내에서 학교 변화를 위해 일했습니다. 산골 오지 초등학교에서 뜻있는 선생님들과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신나는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촌지 없는 학교, 잡부금 없는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참교육학부모회에 참여하게 되셨는지요?

관리자(교장) 한사람의 변동으로 몇 년 동안 쌓은 것이 하루 아침에 원위치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나 혼자의 힘보다 지역에서 연계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조직적인 대처의 필요성을 느끼며 거창지회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하시면서 가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려우셨던 일은?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나 참교육학부모회의 이미지가 지역에서 조금은 강성(?)이라는 편견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정말 아이들의 미래와 꿈을 위해 고민하고 애착을

가진 지역의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인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보람된 일은?

아직 활동기간이 미미해 보람되다는 것보다, 저 자신이 참교육학부모회의 회원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자랑스럽습니다. 금년에는 주위의 다른 학부모들에게 참교육학부모회를 알리고 회원으로 모시는 일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동하시면서 재미있었던 일화가 있으신가요?

큰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별반, 야간자율학습 그리고 방학 중 보충수업을 거부하면서 학교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벌써 고3인데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주말이면 산행하면서 사진도 찍고 학창시절 3년 동안 보람되게 보내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그밖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참교육학부모회에 참여하여 이제 시작이라 여깁니다. 거창지역의 여러 선배 회원들과 함께 참교육학부모회의 진정성을 알리고 지역의 교육 현안을 학부모 당사자의 입장에서 잘 풀어보고 싶습니다.

쉽 터



## 군말산책 13

방문(訪問)



최기중(목포지회 교육부장)

그마가 먼저 백기를 들고  
들어올 기척이 없다.  
여느 때처럼 시치미 떼고  
들어올 줄로 알았는데  
그마는 온종일 캄캄 무소식이다.

냉전시대에  
치열한 내부 투쟁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결론은  
그마에게 투항하는 것이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그마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자존의 창과 방패를 치우고  
불빛 가리개를 걷어내고  
성스런 의자를 준비했다.  
성문 밖에서 대기하던 그마가  
비루스처럼 들창을 넘어왔다.  
그림자처럼 발밑으로 들어온다.

최기중 시집 《나무 위의 여자》 중에서

-. 군말

가정의 구성원들은 모두 분자운동을 한다. 여러 가지 기대나 욕구들을 내보내려는 것이다. 이런 분자들은 가정이라는 좁은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서로 섞이고 부딪치기도 한다. 어떤 분자들은 포용적이고 부드러운가정의 화합을 이끌어 낸다. 또 다른 분자들은 이기적이고 모가 나서 소리나 열을 내면서 풍파를 짓는다.

부부 사이도 이와 같다. 물론 기본은 잉꼬부부다. 그런데 살다 보면 직면을 하는 경우도 생긴다. 불편이라는 분자들이 한꺼번에 공격을 하고 그것에 대항하는 활동이 벌어지는데 도를 넘어서면 부부싸움이 되는 것이다.

어떤 때는 분자 운동이 그리 심하지 않아서 무난히 타협하기도 한다. 하지만 쌓이고 쌓인 분자들이 어떤 때는 과격하게 폭발하기도 한다. 미움과 원망이 총알이 되고 대포가 되어서 서로를 공격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만의 싸움이 끝났다고 해서

승자나 패자가 곧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지진 다음에는 여진이 있듯이 부부싸움 다음에는 냉전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데 이 냉전 상태는 장시간 서로를 피 말리게 한다.

부부싸움 뒤에 남는 것은 자존심밖에 없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해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종류의 편견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싸움은 서로 닳아 가려는 과정으로 봐도 된다. 하지만 중년을 넘어서면 달라진다. 신혼 때와는 달리 마음이 철벽처럼 닫혀 있어서 상대를 이해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냉전 상태가 장기전 형식을 띠는 것이다.

아무 것도 아닌 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보가 되고 성벽이 되는 것이다. 서로 내 탓 니 탓만 하다보면 골만 깊어지는 것이다. 누군가 자존의 창과 방패를 치우면 갑자기 평지가 되는데 말이다.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는 '내 탓이요'가 최고의 무기다.

213호부터 최기중 회원의 군말산책을 실었다. 최기중 회원의 시집 『나무 위의 여자』에다 군말을 덧붙여서 부부 사이를 조명한 글이다. 군말은 사전 뜻으로 '쓸데없는 말'이지만 '한번쯤 잠고 넘어갈 말'이기도 하다. 이 쉽터를 통하여 우리 부부 사이를 한번쯤 생각해보자.



# 책으로 크는 아이들

## 백화현의 가정독서모임 이야기



아기가 처음 태어나 말을 배우고 걷기 시작할 때 부모들은 누구나 꿈에 부풀어 있다. 이 시기 아이는 부모에게 하늘이 내려준 기쁨이고 희망이 되는 존재이다. 그러다 어느 듯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몸이 커지며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게 되면서

부모들에게 아이는 행복만이 아닌 좌절과 불안과 고통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 부모는 “내 아이가 왜 이렇지”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게 된다.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자책감과 엄마 아빠가 느낄 실망감 때문에 움츠리고 성적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이 책을 쓴 백화현 선생은 책임기 교육과 학교 도서관 살리기 운동을 열심히 해온 베테랑 교사이다. 하지만 그녀도

정작 자기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에서는 다른 많은 부모들처럼 실망과 아픔을 겪는다. 그리고 어려움을 풀어나갈 방법을 고민하다가 아이들과 함께 ‘가정독서운동’을 시작했다. 이 책은 백화현 선생이 첫째 아이와 아이 친구들과 함께 가정에서 책을 읽고 토론하고 여행을 하며, 마음을 나누고 배움의 기쁨을 몸으로 체득해 나간 독서모임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녀의 둘째 아이도 친구들을 모아 2기 가정독서모임을 꾸려 활동하고 있다. 가정독서모임은 그림책과 동화책으로부터 시작하여 동서양의 고전문학과 종교, 신화, 역사, 정치, 경제, 과학, 환경 등 여러 다양한 영역의 책을 함께 보고 글을 썼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삶이 무엇이며 무엇이 진실이고 선이며 정의인지를 토론하였다. 그러는 동안 아이들은 놀랄 만큼 자아가 튼튼해지고 친구들에게 너그러워지며 정신이 확장되어 갔다. 책을 읽고 함께 여행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여는 법을 배우고 만남의 소중함을 익혀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배워 나갔다. 책을 매개로 사람을 만나고 책을 통해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는 나만의 눈을 가질 수 있었다는 아이들의 고백을 보면서 아이들과 같이 하는 독서여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된다. 처음 모임이 시작될 때 만화책만 보고 책임기를 싫어하던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되고, 공부를 싫어하던 아이가 공부를 하겠다고 나서며 달라진다. 책 보고 토론하며, 독서 여행을 떠나며 행복한 성장의 길로 들어서면서 건강한 자아를 형성해가는 아이들의 진솔한 기록이 감동적이다.

많은 부모들이 오늘도 희망으로 가득 찼든 절망감에서든 아이를 잘 키우려면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 지 고민이 많은 것이다. 성적과 경쟁만을 앞세우는 가정과 학교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점점 더 메마르고 거칠어져 간다. 그런 고민 끝에 시작한 가정독서운동의 성공적인 사례는 부모에게 희망을 준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경쟁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당당히 헤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책이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사회로부터 강요된 경쟁에 내몰리고 교사가 던져주는 파편적인 지식을 외우는 입시경쟁에 휘둘러 자신을 잃고 이웃을 잃고 삶을 잃어버린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또 다른 세상을 만나 스스로 길을 찾게 해주고 싶은 부모라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이희정(편집위원)

10면에서 이어짐

## <정세청세>와의 두 번째 만남



작년에도 참여해왔던 <정세청세>와 청소년인문학토론 교실이어서인지 아는 얼굴도 있고 해서 반가웠다. <정세청세>는 작년과 프로그램이 비슷해 내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작년 토론자들의 권의로 이번에는 중학생은 중학생팀 고등학생은 고등학생팀으로 각각 나누어졌는데, 중학생으로만 팀을 짜서 토론을 하니 중학생끼리라서 그런지 대화는 좀 되는 듯 했지만 주제에 관한 이야기와 영상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다.

마지막에 전체토론이 끝난 후에 바로 중학생만 하는 청소년인문학토론

을 시작하였다. 인문학교실에서는 ‘미누, 시즈위 밴즈를 만나다’라는 연극을 봤는데 사회문제를 다루고 있어서인지 중학생인 나에게는 조금 어렵고 이해가 안 되기도 했지만 연출가님의 말씀을 조금씩 참고하면서 연극을 보니 그래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연극은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인데 나는 실화라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전체적인 구성은 잘 이루어진 것 같아서 좋았다.

청소년인문학토론, <정세청세>에 앞으로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현경(울산중학교 2학년)

## 사회에 대한 고민을 갖게 한 청소년인문학토론과 <정세청세>

작년, 중1 때 청소년인문학토론과 <정세청세>에 참여하면서 청소년과 사회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청소년인문학토론은 같이 책을 보고, 그 책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함께 생각해보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인문학토론과 <정세청세>에 참여하기 전에는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서봤자 뭐가 달라지겠나...’ 또는 ‘나는 아직 너무 어려...’라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 그런데 엄마의 추천으로 한 번 속는 셈치고(?) 가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청소년들끼리 모여 생각하고 비판하고 토론하는 곳이었다. 내 머릿속에 혼란이 왔다. 그리고 나를 되돌아보았고 생각했다. ‘나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청소년도 충분히 사회에 나설 수 있구나.....’

물론 직접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이 모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이라도 사회에는 큰 파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정세청세>가 점점 전국으로 퍼지면서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즉 자신과 사회에 대해 고민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세상을 멀리서 보게 된다는 것이다. 아마도 정부, 또는 힘 있는 자들이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한 마디라도 할 수 있고, 작은 행동을 보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청소년인문학토론과 <정세청세>에 참여해오면서 사회가 한심하기도 하고 내가 모르고 있었던 지식과 진실, 또는 정책들을 알아왔다. 정말로 실망스러웠고, 짜증과 화가 올라왔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자유, 진실, 사랑 등을 알아간다는 것이 뿌듯하기도 했다. 내가 커서 성인이라는 힘을 가질 때는 무언가라도 해서 사회를 바꾸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정현정(울산서여중 2학년)



# 학부모가 보는 KBS 수신료 인상



수신료는 KBS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및 프로그램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의 온 국민의 직접적 비용 부담으로 재원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실제로 달마다 2,500원이 전기요금청구서 '청구내역'란 맨 마지막 줄에 'TV수신료'라는 명목으로 청구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전기요금은 내가 사용한 만큼 내는 것이라는 생각과 내지 않으면 전기가 끊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징수율은 언제나 98%가 넘는다. 매우 효율적인 징수가 이뤄지는 것이다.

그런데 KBS이사회는 수신료를 광고 없이 월 6,500원으로 인상하는 안과 광고를 20% 유지하면서 월 4,6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놓고 논의를 시작했다. 수신료를 인상하는데 KBS 이사회가 앞장을 서는 것은 법과 규정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수신료의 90.7%를 KBS가 독차지 한다는 데도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수신료와 KBS를 분리

시켜 생각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지금 KBS가 수신료를 올려야겠다는 말을 꺼낼 수 있는 상황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KBS에 대한 언론으로서의 신뢰성을 살펴보자. 2004년부터 2008년 6월까지 5년 연속 KBS는 신뢰성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언제나 1위를 지켜왔다. 그러나 2009년 6월 국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조사에서 KBS는 MBC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그해 8월 시사저널 조사에서는 MBC와 한겨레에 이어 3위를, 그리고 한국기자협회 조사에서도 한겨레와 MBC에 이어 3위에 머물렀다. 최근 한길리서치에 의해 6월 9~10일 이틀 동안 한국방송학회 소속 학자와 기자 피디 등 300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 정부 들어 KBS의 정치적 독립성과 보도 공정성'에 대하여 76.7%가 나빠졌다고 대답한 반면, 좋아졌다는 응답자는 5.3%에 불과했다.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 제일의 공영방송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언론통제를 위한 정부의 YTN MBC KBS 등에 대한 무도한 언론탄압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한 결과 KBS는 더 이상 공영방송으로서의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아무리 언론을 통제하고 일방적인 정보만을 국민들에게 전달하여도 이제 더 이상 정부의 의도대로 우리 국민이 꼭두각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분명히 볼 수

있었다. 천안함을 계기로 불러일으킨 전쟁공포조차도 국민의 깊은 속뜻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웅변한 것이다. 오히려 여론조사에서도 자신의 뜻을 제대로 드러낼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으로써 실제 선거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게 한 것은 정부의 왜곡된 언론정책이 결국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우리 국민의 자존감만을 훼손시킨 것이다.

운영 면에서도 수신료 인상은 그 정당성을 설명할 수가 없다. 2013년부터 전면 시행될 디지털전환 비용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KBS는 2009년에 693억 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010년에도 500억 원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KBS가 수신료를 올리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1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KBS수신료 인상이 이뤄지면 연간 7~8천억 규모의 광고가 민간시장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이는 미디어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종합편성채널에 생존수단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조중동에 종편채널을 맡김으로써 친정부적인 여론을 조성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KBS에 진정 필요한 일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침해당하는 제작진의 자율성을 회복하여 무너진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여 공영방송으로서 제 자리를 잡는 일이다.

송환웅(언론정보출판위원장)

## 수신료와 EBS

방송수신료 얘기가 나올 때마다 KBS는 수신료가 1981년에 월 2,500원으로 책정된 이후 국민소득은 9배, 신문구독료는 6배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30년째 묶여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다. KBS는 수신료의 90.7%를 독차지하면서도 방송수신환경 개선에는 수신료의 2% 정도밖에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가정에서는 오직 지상파 방송을 보기 위하여 원하지도 않는 케이블방송이나 위성방송에 수신료의 3배가 넘는 비용을 부담하며 가입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이에 따라 엄청나게 늘어난 채널에 대하여 자녀 시청지도를 하기가 아주 어려워졌다. 기계적 방법으로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지만 이런 방법만으로는 역시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학년이 좀 올라가면 아이들의 조작기법이 부모의 그것을 훨씬 넘어서기 때문이다.

수신료 배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90.7%(건당 2267.5원)를 제외한 금액 중 6.5%(건당 162.5원)는 한국전력공사에 수납대행수수료로 지불되고 나머지 2.8%(건당 70원)만이 교육방송에 지원되고 있으며, 이것이 교육방송 전체예산 555억 원(2009년 결산 기준)에서는 8%(약 156억 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를 대표하는 교육전문 공영방송이라는 EBS가 그 재원의 71%를 광고 교재출판 등의 상업적 재원에 의해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정부의 목적사업에 따라 배부되는 국고보조금(2009년 경우, 203억 원 11%) 또한 그 금액과 교부일정이 안정적이지 못한 관계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지난 일기는 하지만 독점적 EBS교재 가격에 따른 문제라든가, 방송제작비 부족 때문에 신규제작 편성비율이 2009년의 경우 겨우 31.2%까지 감소하여 재활용이나 재방송 혹은 외부구매 작품으로 나머지 68.8%를 채워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는 생동감과 입체감은 물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까지 요구하는 오늘 우리 청소년들의 적극적 접근을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수신료 인상안에서는 EBS에 대한 배분율을 2.8%에서 5%로 상향조정하겠다고 했지만, 외국의 경우 주요 공영방송의 주채널과 교육문화채널 간의 재원 배분비율은 평균 78:22로 우리나라보다 4배 가량 높다. 그리고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지 못하다는 국민여론 때문에 수신료 인상이 좌절될 경우, EBS는 또 다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회에 수신료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우선 온 국민이 부담하는 수신료를 KBS가 주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신료위원회' (가칭) 같은 독립기구를 두어 수신료의 결정과 조정 배분 등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위원회에는 방송전문가만이 아니라 수신료를 직접 부담하는 시청자가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 수신료 운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수신료 사용내역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어느 누구의 정보공개요청이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항상 공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KBS는 수신료 사용내역을 단 한 번도 분명하게 분리하여 공개한 적이 없다. 이 또한 KBS의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국민이 거부감을 가지는 주요한 이유임을 KBS는 알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기회에 KBS에 대한 수신료와 EBS에 대한 수신료를 처음부터 분리하여 책정 관리함으로써 KBS 때문에 EBS가 덩달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 뉴미디어 시대를 살아갈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흥미롭고 유익한 방송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송환웅(언론정보출판위원장)



사설

# 누구를 위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인가

7월 13일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일제고사로 인해 일선학교는 물론 시도 교육청까지 초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몇 번 치러졌던 일제고사 성적이 학교별 지역별로 공개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 평가에 반영한다고 하니까 교사뿐만 아니라 교장까지 나서서 야간 강제학습을 시키고 있다. 교육청, 교장, 교사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 호들갑이지만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은 “왜 성적에도 반영되지 않고, 수능에도 그다지 영향력이 없는 시험을 치르느라 이 고역을 치르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불멘 소리를 한다.

더구나 10월에 치러질 학업성취도 평가를 3개월 앞당겨 7월에 치르면서 대상이 초6, 중3, 고2로 변경되어 중3부터 내리3년 연속 일제고사를 치르게 된 현재 고2 학생들은 불만이 더더욱 높다. 개인의 실력향상이 아니라 학교 성적순위를 위해서 동원된 시험을 계속해서 치렀던 입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일제고사로 인한 학교현장의 파행은 지속되어 왔지만 올해는 더 유난하다. 3월, 개학하자마자 학부모상담실에는 일제고사와 관련된 상담이 부쩍 늘었다. 일 년 내내 자녀의 시험 뒤치다꺼리를 해야 했던 학부모들의 목소리도 커진 것이다. 특히 작년에 성적이 낮은 지역일수록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가는 교육과정 사례가 많이 접수되었다. 상대적으로 시험성적에 조금은 자유로웠던 초등학생까지 0교시와 방과후 강제 보충수업으로 밤늦게까지 학교에 갇혀 시험문제를 풀고 있다. 정규 교과 시간에도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 수업을 하고 있다. 이쯤 되면 학교가 아니라 ‘시험공화국’이라 불릴 만하다. 게다가 다급해진 교장들이 경쟁적으로 초등학교 쉬는 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단축했다가 비난이 쏟아지자 되돌린 어처구니없는 사태까지 발생

했다. 이것이 경쟁으로 찢든 지금의 학교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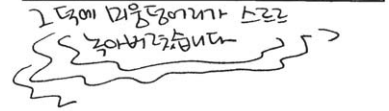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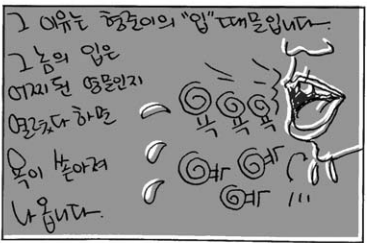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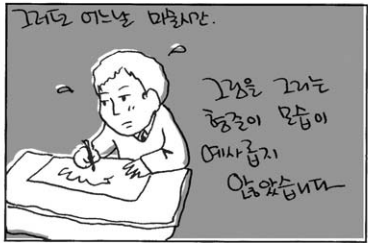
이명박 정부는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가려내고, 그들을 지원해서 학력을 올리겠다고 했다. 그것을 누가 반대하겠는가. 하지만 속내를 감추고 있다. ‘지원보다는 개인, 학교, 교육청 간 경쟁을 시켜 학력을 끌어 올리겠다’는 것이 의도다. ‘학습부진아를 지원한다’는 그럴싸한 허울을 뒤집어썼기 때문에 학교는 교육현장이기보다는 경쟁의 도가니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제 7월 13일이면 또다시 일제고사로 인해 학교는 전국적으로 홍역을 치르게 된다.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정책인가. 6·2 교육자치 선거에서 국민들은 ‘이명박 경쟁만능 특권교육’을 심판했다. 그리고 ‘경쟁보다는 지원’을 하는 진보적 가치를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 정부는 학교를 살리고 학생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일제고사는 전면 폐기해야 한다.

## 타조알 선생의 교실 풍경

# 형준이의 손

이 만화는 <타조알 선생의 교실 풍경> 중 ‘형준이의 손’을 실은 것입니다. (타조알 선생의 교실 풍경)은 봄·여름·가을·겨울로 나누어 1년 동안 학생들과 부딪히며 발생하는 상황을 만화로 옮긴 것입니다. 저자의 동의 하에 2년째 연재합니다.

<타조알 선생의 교실풍경>  
지은이 \_ 이성수  
출판사 \_ 나라말  
가격 \_ 9,000원



발행처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발행인 장은숙  
편집위원 송환웅 오명실 이희정 임영희 장은숙 전은자 강인수  
주소 (우)110-100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남동 73번지(2층)  
전화 02-393-8900 전송 02-393-9110  
상담실 02-393-8980  
누리집 www.hakbumo.or.kr 한글주소 참교육학부모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장은숙 수석부회장 송환웅 부회장 김석순 최주영 감사 임영희 서경자 정복순 상담실장 박부희 정책위원장 윤숙자 교육자치위원장 전은자 조직위원장 최주영 언론정보출판위원장 송환웅 상근자 심정숙 원소영 박수미 강인수		
서울지부	02)3491-5235	지부장 최정화
	남부지회 02)588-8980	지회장 강혜승
	동북부지회 02)3491-5235	지회장 최정화
인천지부	032)438-3970	지부장 김은중
경기지부	031)864-3958	지부장
	고양지회 031)905-5893	지회장 이현숙
	구리남양주지회 031)568-2311	지회장 차경희
	성남지회 031)716-8583	지회장 김윤주
	양주지회 031)864-3958	지회장 정영미
	용인지회 031)281-7969	지회장 김미선
	의정부지회 031)876-2816	지회장 오명실
	파주지회 031)955-2623	지회장 김부정
	수원지회 010-9196-2075	지회장 정연훈
	김포지회 070-7761-9890	지회장 노계향
강원지부(주)		
충남지부	원주지회 033)763-6423	지회장 윤금옥
	041)576-6677	지부장
	천안지회 041)576-6677	지회장 박갑주
	홍성지회 010-5420-3979	지회장 조성미
광주지부	서산태안지회 011-430-3414	지회장 이희출
	062)228-6998	지부장 최은순
	전북지부 063)535-0191	지부장 권승길
	전주지회 063)231-9770	지회장 임혜순
전남지부	정읍지회 063)535-0191	지회장 장세희
	061)334-9271	지부장 오승주
	목포지회 061)284-6575	지회장 김승진
	화순지회 061)375-9109	지회장 문은아
대구지부	나주지회 061)334-9271	지회장 박정연
	장흥지회 011-631-1074	지회장 신성호
	영암지회 010-9473-6876	지회장 정미숙
	광양지회 010-5622-5333	지회장 이희정
부산지부	053)751-4070	지부장 양승희
울산지부	051)556-1799	지부장 채승영
경북지부	052)268-0987	지부장 최선미
	017-511-9143	지부장 신현자
	안동지회 010-2971-0780	지회장 김승균
	포항지회 054)242-9143	지회장 전금순
	구미지회 011-506-2601	지회장 김성희
	상주시회 010-2276-2338	지회장 김미경
	의성지회 010-8422-0923	지회장 임창대
	경주시회 010-7580-8796	지회장 신경진
	경남지부 055)282-1950	지부장 김미선
경남지부	진주시회 055)748-1352	지회장 김미선
	거제지회 055)638-4130	지회장 최양희
	마창진지회 055)282-1950	지회장 진인애
	김해지회 010-3359-9579	지회장 임창현
	거창지회 055)942-8272	지회장 유수상
	밀양지회 010-9955-0148	지회장 하정훈
준비위	안양 010-5044-4335	위원장 정애경

지문위원회 ● 이규환(지문위원장·전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강순원(한신대 교수)/강지원(법률사무소 청지 변호사)/권창희(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김기태(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김민남(전 경북대 교육학과 교수)/김영삼(성동굴로별경영고등학교 교사)/김용일(한국해양대 교직과정 교수)/김이경(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 실장)/김홍렬(선진회계법인 공인회계사)/김희은(여성사회교육원 원장)/도종환(시인)/민덕기(화산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박수선(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소장)/배옥병(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송대현(전교조 경북지부 상담교사)/송병춘(변호사)/송순재(감신대 기독교교육학과 교수)/이재분(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소장)/임재택(부산대 유아교육과 교수)/전양숙(새틀심리상담 소장)/정홍택(상명대학교 석좌교수)/조상희(법무법인 창조 변호사)/최문순(국회의원)/최현선(전 강원대학교 총장)/황수경(어린이도서관 꿈꾸는교실 관장)



# 백창우 아저씨네 노래창고에서 신나는 노래상자가 튀어나왔어요



## 이보다 더, 아이들을 위한 노래가 있을까?

이 세상에서 아이들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이오덕 할아버지, 권정생 할아버지, 임길택 아저씨의 시가 아이들과 함께 노래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백창우 아저씨를 만나 맑은 노래로 태어났어요. 아이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이야기부터 아이들 마음속에 들끓는 온갖 감정들을 모두 아울러 노래에 담아낸 <백창우 아저씨네 노래창고>. 세 가지 노래상자에 담긴 아이들 노래를 만나보세요.

- 이오덕 할아버지의 노래상자 **노래처럼 살고 싶어**
- 권정생 할아버지의 노래상자 **바보처럼 착하게 서 있는 우리 집**
- 임길택 아저씨의 노래상자 **나무 꼭대기 까치네 집**

노래상자마다 백창우 아저씨가 직접 그린 손익보 책과 CD 두 장이 들어 있습니다.



전화 031-955-3535 | 누리집 www.boribook.com | 블로그 boribook.tistory.com 보리

# KBS 수신료 인상반대 스티커를 제작했습니다

**KBS수신료** 2500원에서  
**6500원**으로 폭탄인상

**수신료거부TIP**

1. 인터넷  
한국방송공사 홈페이지에서  
TV보유대수를 0으로 변경
2. 전화  
국번없이 123에 전화  
상담원에게 "TV없어요"

**절대 못내!**

'정권 홍보 방송' 을 위해 매달 6500원을 내겠는가?

## 신청방법

KBS 수신료 인상반대 스티커가 필요하신 분은  
이름, 주소, 연락처, 수령을 기재후 전화, 이메일,  
팩스로 신청해주세요! (담당: 조영수)

전화 02-392-0181

이메일 ccdm1984@daum.net

팩스 02-392-3722

# 학교, 갑내지 말자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학교생활 지침서



참교육학부모회에서 기획하고,  
십 년 넘게 학부모회에서 활동한  
선배 학부모가 시시콜콜 들려주는 학교생활 안내서

아이의 학교생활과 학습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학교에서 폭력이나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학교에 내야 할 돈과 내지 말아야 할 돈은 무엇인지,  
학교일에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지, 학부모가 알아 두면 좋을  
기본지식을 비롯해 지혜롭고 건강한 학부모가 되는 길을 보여준다.  
학교, 아는 만큼 보인다! 무턱대고 불안해 말고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



'내 아이를 옆집 아이 바라보듯, 그렇게 친구 같은 엄마가 될 거야!'

순진한 다짐을 했던 엄마였다. 그러나 현실은 전쟁터였다.  
옆집 아이는 점점 공부를 잘하는데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면서  
잔소리장이가 되어갔고, 아이랑은 점점 멀어지고... 아, 어쩔 줄도 말인가!

한숨만 쉬지 말고 길을 찾아보자. 책 속에 길이 있다지 않은가?

\_김미화(방송인)

학부모는 학교를 겁내고, 학교는 또 학부모들을 겁낸다.

두려움은 관계를 망친다. 겁내지 않으려면 서로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 책은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한 선입견, 두려움에서 벗어나

학교에 먼저 다가갈 수 있게 도와준다. \_박재동(만화가)



참교육학부모회 기획 \* 박이선 · 황수경 지음 \* 12,000원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교육 **민드레**

한 권 값 6,500원 | 1년 정기구독료 35,000원 | 정기구독 신청 | 02-322-1603 | mindle98@empal.com | www.mindle.org